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단 12:4)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였던 R.C.스프로울(1939~2017)은 「미합중국에는 헌법을 해석하는 임무를 가진 고도로 숙련된 사람 아홉 명이 있다. 그들이 미국의 대법원을 구성한다. 하물며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미국의 헌법을 해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숙한 일이다. …성경은 그 자체가 대법원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모든 인류에게 큰 매력을 주면서도 두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원전 6 세기에 다니엘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고 예언합니다. 이 구절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은 여러 갈래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이 구절이 그 만큼 어렵다는 증거가 될런지 모릅니다. 성경의 대원칙 가운데 하나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의 경고, 즉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벧후 1:20,21)의 말씀을 떠 올려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시대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임무는 이 예언의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안전하게 간수하면서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서 지혜를 얻도록 하는데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임무중 하나는 우리가 계시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일본인들을 포함시키는 일입니다. 한국인에게 있어서 일본인이란 늘 우리의 감정을 격하게 만드는 백성일런지 모릅니다. 과거사에 대한 사죄는 커녕 혐한(嫌韓)을 조장하는 일본인들을 상상만해도 금방 기분이 나빠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본인들이 극우는 아닙니다. 한국인들을 만나면서 마음에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일본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서서히 「국경없는 세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인류에게 큰 고통과 상처를 남기고 있지만, 그것이 비대면 세상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긴급사태선언(일본), 락다운(Lockdown, 도시봉쇄), 이동 및 외출 제한 등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집합금지로 인해 예배금지, 예배참석자 제한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비대면 사역의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복음은 라디오, 비디오 테이프, 텔레비전 등을 통해 세계 곳곳에 숨겨져 있던 사람들에게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지금도 핸드폰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ZOOM 이나 GOOGLE MEET 등을 통해 비대면 영상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국경없는 세계를 경험하면서 특별히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부문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 해외 일본인 거주지역 파악 및 사역

총 1,390,370 명(2018 년 10 월 1 일 현재)의 일본인이 일본을 떠나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1) 나라별 총수

① 미국	446,925 명	⑥ 영국	60,620 명
② 중국	120,076 명	⑦ 브라질	51,307 명
③ 호주	98,436 명	⑧ 독일	45,416 명
④ 태국	75,647 명	⑨ 프랑스	44,216 명
⑤ 캐나다	73,571 명	⑩ 한국	39,403 명

2) 도시별 총수

① 로스앤젤스	68,823 명	⑥ 시드니	33,007 명
② 방콕	55,081 명	⑦ 런던	29,667 명
③ 뉴욕	47,563 명	⑧ 밴쿠버	28,281 명
④ 상하이	40,747 명	⑨ 홍콩	25,705 명
⑤ 싱가포르	36,624 명	⑩ 샌프란시스코	19,255 명

급변하는 세계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된다는 사실은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입니다. 작은 일처럼 보이는 것도 기도하는데 이렇게 큰 일을 두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일본인 사역에 있어서 비대면 사역은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일본인에게 있어서 일본안과 밖은 대단히 다른 세상입니다. 일본안에는 신사와 절뿐만 아니라 이교문화가 가득차 있어서 보통의 일본인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음에 배타적인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한편 일본밖에는 신사와 일본식 절만이 아니라 일본의 이교문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에 반응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2 주전에도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동료 선교사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일본인들이 6,000 명이 살고 있는데, 자신과 교체하는 일본인들이 제법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세계 곳곳에 선교사들과 믿음의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적극적으로 전략을 수립해서 행동을 한다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선교현장이 펼쳐지리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협력하고 있는 일본기독교개혁파교회에 소속한 성도들 가운데 그 자녀들과 가족들 그리고 친척들이 유럽이나 미국 그리고 세계 여러 곳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 비대면 사역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서로 정보를 나누면서 복음 전도와 양육에도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물론 우리는 일본에 거주하면서 일본선교에 임하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일본내에 있는 일본인들에게 더욱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일본인들을 사랑하며 섬겨야 하는 자가 우리 선교사들입니다. 일본이

우리의 선교지이며, 일본인이 우리의 선교의 대상입니다.

오늘 해외 일본인 거주지역 파악 및 사역에 관해 잠시 언급하는 것은 국경없는 세계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어떤 선교방향과 사역이 필요하게 될런지를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이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로 협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 일본거주 한국인의 수(조총련 포함)

총 479,193 명(2018 년 12 월 현재)의 한국인(조총련 포함)이 지금 일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 오오사카부	105,184 명	6) 교토부	25,666 명
2) 동경도	99,901 명	7) 사이타마켄	17,359 명
3) 효고켄	42,294 명	8) 후쿠오카켄	16,797 명
4) 아이치켄	32,176 명	9) 치바켄	16,735 명
5) 카나카와켄	29,930 명	10)히로시마켄	8,337 명

현재, 동경, 오오사카, 나고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선교를 위해 여러 교회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인교회 안에도 일본인이 있을 수 있고, 일본인 교회 안에도 한국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한국인 목사들과 선교사들이 한인교회 혹은 일본인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일본 거주 한국인 전도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본거주 한국인들의 전도와 특히 일본에 있는 한인교회들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중보기도는 선교사의 힘의 원동력입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 가운데서도 주일예배와 수요일 기도회를 계속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차츰 평일 모임이 회복되어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게 하소서
2. 어린이 크리스마스 모임(12/19), 크리스마스 기념예배(12/20), 크리스마스 찬양예배(12/24)를 통해서 진심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도록
3. 수요일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을 체험하게 하소서
4. 주은:12월에 있을 석사 졸업과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박사과정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하소서
주향:섬기는 교회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주은, 주향이가 주님 안에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소서
5. 후원금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잘 채워지게 하소서
6. 우리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소서

2020 년 11 월 2 일(월)

일본 이누야마(犬山)에서
김기태/김혜금(주은, 주향) 드림